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택진이 형 집행감에 맞설 용진이 형의 킬러아이템은?

신세계 정 부회장-NC 김 대표 '혁신의 아이콘'
NC 양의지처럼 올 시즌 후 대물 영입할 지 주목



신세계 정부회장 NC 김택진 대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53)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54). 한 살 차이 또래인 이들은 국내외 언론에서 한 국경제를 이끌 차

세대 CEO를 꼽을 때 언제나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 동시에 2020년과 2021년 한국스포츠에서 가장 뜨거운 재계인사가 됐다. 지난해 김택진 대표가 뽑히는 '집행감'에 정용진 부회장이 어떤 카드를 내세울지 벌써부터 흥미롭다.

신세계그룹과 SK텔레콤(SKT)은 26일 SK 와이번스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와이번스 지분 100%를 보유한 SKT가 1352억8000만 원에 신세계그룹 이마트에 야구단을 넘기는 내용이다. 정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선에서 교감이 오간 뒤 실무선이 마무리한 '뜬다운' 방식으로 야구계 모두가 놀랄 만큼 비밀리에, 또 갑작스레 진행된 결정이다.

인수를 진두지휘한 정 부회장이 수년 전부터 야구팬에 뛰어들길 희망했으니 자연히 결과물에도 관심이 높다. 정 부회장은 스타벅스코리아를 시작으로 노브랜드, 스타필드 등 혁신을 도입했고 적극적인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이를 '셀프-세일즈'했다. 대중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평가다. 야구단에서 대중은 '야구팬'이다. 이미 정 부회장 SNS에는 야구팬들의 애정 어린 댓글이 가득하다. 팬 친화적 구단 운영이 기대되는 이유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인천야구장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테마파크'로 변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물론 스타필드의 '스포츠몬스터' 등 신세계그룹의 대표 시설이 입점할 가능성도 있다. "고객의 돈이 아닌 시간을 갖는다"는 정 부회장의 철학이 담긴다면, 야구팬들은 인천야구장을 찾아 전국의 소문난 맛집의 음식을 먹고,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MOU 발표와 함께 약속한 동구장 건립은 변화의 신호탄에 불과할 것이라 시선도 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서울서 첫 우승축배” 캡틴 기성용의 야망

명가 재건 꿈꾸는 FC서울 전훈캠프에 가다

“K리그는 내 축구의 시작과 끝
주장 완장은 영광스러운 족쇄
팔로세비치·나상호 수혈 ‘굿’
오스마르와는 눈빛으로 통해
목표는 우승·부상 없는 시즌
전북·울산과 경쟁 기습 설레”



FC서울 기성용은 새 시즌 주장을 맡았다. K리그로 복귀한 지난해에는 부상에 발목을 잡혔던 만큼 올해는 건강한 몸으로 팀과 함께 비상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 동계전지훈련에서부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FC서울

“아프지 않은 행복한 축구를 해야죠. 또 최대한 높이 올라갈래요.”

기성용(32·FC서울)의 2021시즌 다짐이다. 먼 길을 돌아 도착한 친정에서 부상 없이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꾸준한 플레이를 하면 성과도 따라오리라 믿는다.

박진섭 감독이 이끄는 서울 선수단이 1차 동계전지훈련을 한 창원에서 만난 기성용은 여유로웠다. 새 시즌 주장으로 임명된 그는 훈련장과 숙소에서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책임감’을 이야기했지만, 강렬함이 아닌 부드러운 모습이다. ‘책임과 부담, 영광이 뒤섞였다. 행복한 족쇄. 가장 모범이 되고, 희생하며 헌신하겠다.’

서울 유니폼을 다시 입은 지난해 여름, 기성용은 기대와 달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5경기 출전에 그쳤다. 서울의 추락도 막지 못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다. 이제는 자신 있다. “경기장의 나를 보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느낌을 팬들이 갖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의미가 크다. 과거 모습을 되찾고 싶다. 좋은 플레이로 인정받고 싶다.”

● 회복

“유럽 여정을 마칠 무렵, 너무 감감이 떨어져 있었

다. (복귀 후) 정상 궤도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리란 생각은 했는데 훨씬 좋지 않더라. 급했다. 올하는 최대한 긴 시간을 피치에서 머물고 싶다. 나도, 팀도 높은 목표대로 경쟁하고 싶다.”

기성용이 말하는 ‘높은 위치’란 타이틀이다. 셀틱(스코틀랜드)에서 리그와 컵대회를 정복했지만, K리그에선 트로피가 없다. 서울은 그가 강한 애착을 지닌 팀이다. 프로무대에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이다. 10여년의 유럽생활을 마친 뒤 K리그로 유턴하는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어도 특별하고 소중한다. “적응은 끝났다”고 힘주어 말하는 기성용의 눈이 반짝였다.

● 기대

“(나상호, 팔로세비치, 박정민 등) 좋은 선수들이 합류했다. 반가운 일이다. 부족함을 채워가는 모습이 고무적이다. K리그를 주도한 전북 현대, 늘 꾸준했던 울산 현대 등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서울이 모처럼 전력보강에 나섰다. 이적시장에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그간의 모습과는 다르다. 기대되는 대목은 또 있다. 오스마르와 호흡이다. 미드필드에서 찰떡궁합을 보일 이들 콤비는 서울의 자랑이다. 지난 시즌에도 호흡을 맞추며 나름 합격점을 받았다.

운전한 컨디션이라면 둘은 더 강력해진다. 일각에선 ‘말이 느리다’고 걱정하지만, 기성용의 생각은 다르다. “상대는 기술이 떨어질 수도, 경기운영이 미흡할 수 있다. 누구든 완벽하지 않다. 우리의 스피드를 걱정하지 말라.”

● 영웅

“존경하는 형님, 선배들과 함께 호흡한다. K리그에 적응은 스토리가 쌓였다. 많은 경험을 했던 축구인들이 K리그에 지식과 노하우를 잘 전달하면 우리 K리그도 훨씬 발전할 거다.”

새 시즌 K리그에는 옛 영웅들이 대거 합류했다. 2012런던올림픽 동메달 기적을 함께 쓴 홍명보 감독이 울산 사령탑,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뽀 이영표가 강원FC 대표로 취임했다. 박지성도 전북의 어드바이저로 새롭게 출발한다. 또 ‘절친’ 이청용은 흥 감독의 지휘를 받는다.

기성용도 이를 무척이나 반겼다. “정말 긴 시간을 보낸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K리그를 위해 헌신한다. K리그가 좋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역할에 모든 힘을 쏟겠다.”

창원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1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3년 연속 1위

미국영화 ‘미나리’로 현지 20개 영화상의 여우조연상 휩쓴 ‘74세 여배우 윤여정의 매력 탐구’ ▶ 11면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Returnup 리턴업

10년 연속 판매 1위

No. 1

10년 연속 판매 1위

소팔메토 엘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벤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